

11월 지육시세는 3,100원/ kg 예상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계열팀

매년 11월은 연말 회식 및 소비증가로 돼지 출하두수는 늘어나고 소비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돼지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달이다.

11월 초순에는 주춤하던 소비가 11월 중순 김장철로 접어들면서 보쌈용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나면서 연말 회식 등으로 함께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레 바닥을 찼던 돼지 가격도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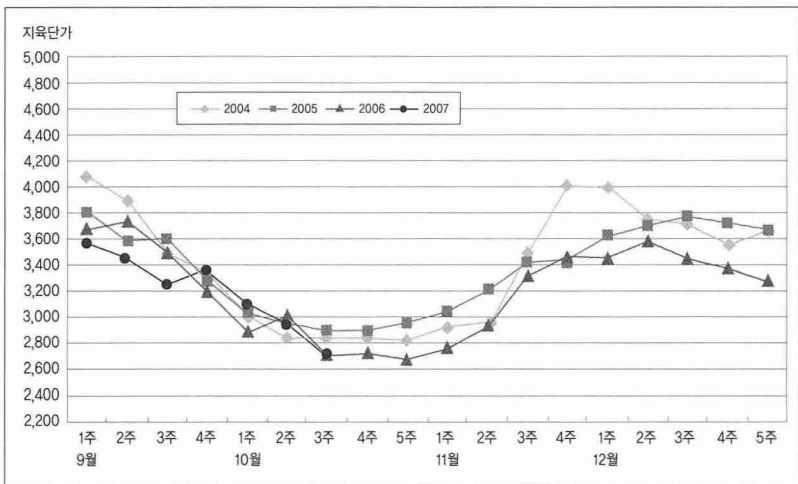
이러한 추세는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월 돼지고기 시장이 국내산 돼지고기의 출하 감소와 수입 돈육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와 추석에 따른 소비 증가 추세에 따라 예년과 다른 가격을 형성하여 왔고 10월 초순에도 예상보다는 높은 단가를 형성하여 왔으나, 10월 중순 이후 출하물량이 증가하며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증가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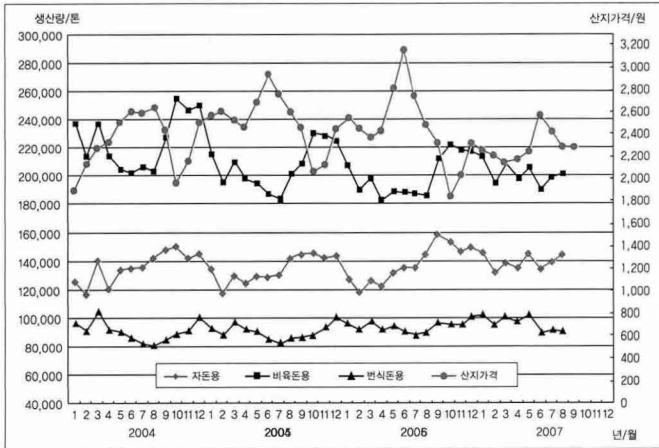
9월 초에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한 가축 사육두수 통계는 전년보다 약 3% 늘어난 9,659,228두를 기록하고 있으며, 11월 출하 예정돈인 4~6개월령 돼지두수도 2,526,194두로써 전년동기보다 3.95%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돼지 사육두수 급등에 따른 가격의 폭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장이 늦어진 돼지가 보상성장을 하고 출하두수가 몰리면서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있다고 보여진다.

금년에는 늦더위로 9월 중순까지 더워지면서 돼지의 성장이 지연되고 성장축진이 늦어지면서 9월 도축두수가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기현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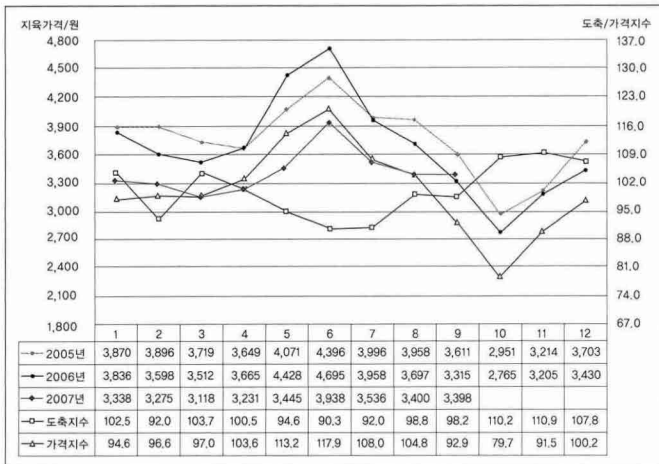
금년 9월의 돼지 도축두수는 995,893두로써 전년 동기보다 15.4% 전월보다 13.3% 줄어들었다. 9월 돼지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8월 가격보다 상승



<그래프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래프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래프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 동향

지 누계로 약 25만 톤을 수입하게 되어 전년 동기보다 2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1월 출하두수에 영향을 미치는 8월 자돈사료 생산량 추세도 144,86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하고 전월 대비 4.5% 증가하여 11월 비육돈 출하두수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128만두 내외를 도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로 들어서면서 소비 증가 추세를 예상하는 수입업자들이 11월과 12월은 전년처럼 수입물량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고 국내산 돼지고기도 사육두수 증가 추세에 힘입어 11월 출하두수 증가 추세는 지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공급측면에서의 11월 돼지고기 공급은 수입물량과 국내산 돼지의 출하물량 증가에 힘입어 10월보다 증가하며 사상최대 공급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측면에서는 연말 소비 증가와 대통령선거 등의 여러 행사와 주식시장의 호황 등에 힘입어 소비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1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10월보다 400원정도 상승한 3,100원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

한 이유가 도축두수의 감소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서 사육 두수가 증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출하두수가 13.3%까지 줄어든 이유가 단순히 늦더위가 9월 중순까지 지속되면서 성장지연으로 출하두수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질병의 피해가 예상보다 커서 출하두수가 줄어든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전자라면 일시적인 출하 증가와 돼지가격 하락이 예상되지만 후자라면 돼지가격의 하락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월 돼지고기 수입량 또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10,678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25% 감소하고 전월보다 약 38%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육류 공급량의 대폭 감소와 재고 물량의 소진을 불러와 돼지가격의 하락을 지연시켜 주었다.

그러나 금년 9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192,815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29%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수입이 진행되면 연말까